

DYNAMIC
BUSAN

BS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심심한 연극,
감성을 충전하다.

제 29 회

부산연극제

Busan Theater Festival

2011. 3.24(목) ~ 4.10(일)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연극협회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KNN 부산평화방송 부산CBS BBS 부산불교방송

협찬 | BS 부산은행 KYOBO 교보생명 MEGA MART 아얌햇살(주) 옴스 한국특장차(주)

감성있는 연극, 감성을 충전하다
제29회
부산연극제

극단 자유바다

돌고 돌아가는 길

작/연출 정경환

4.3(일) 18:00, 4(월) 19: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작/연출 정경환

연출의도

전철(前轍-앞 선 수레바퀴라는 뜻.)을 밟는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만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을 반복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
앞의 수레가 없어진 것을 보고서도 인간은 이익에 눈이 멀어 다시 그 길로 접어드는 반복을 한다.

참과 거짓...연극이 지향하는 표현의 기본이고 양식아닐까.
사실과 비 사실의 혼재를 통해 관객과 만나는 본능적인 예술이 연극인 것이다.
이 작품의 무대는 길 무대와 평면 무대, 즉 인간의 움직임은 삶을 표현하는 길과 바뀌지 않는 정신의 세계를 서로 교차하며 보여주고, 등장인물의 삶과 행동을 따라간다.

과거와 현재의 동질성!

무대 위에선 과거를 표현하지만 보면서 현재의 모습과 연상되었으면 한다. 과거의 교훈이 현재의 반면교사가 되어 현재의 인간들이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잘 살기 위한 명분으로 개발되는 무분별한 사업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업들이 정말 우리들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위정자들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만 돌고 돌아...인간의 삶이 이리도 정신이 없어서야... 이리다가 인간짓이라도 제대로 할련지...

줄거리

일월산 관광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동네사람들 반대가 심하다. 하지만 결국 골프장과 호텔이 건립되고 산 일원의 무덤들이 이장되는데...갑자기 원형그대로의 미아라 발견된다.
건설업자 장수복은 공덕비를 자랑하는 자기 조상 장씨 집안땅이라고, 빨리 공사재개를 요청하지만, 공사는 중단되고 무덤에 대한 학술조사가 시작된다.

미아라의 여인-장씨집안 숙미, 머리만 있는 남자-조씨집안 구도...그리고 이들의 사연이 담긴 비석이 함께 나온 무덤. 그 사연을 따라 가본다.

때는 조선 임진왜란 직전, 일월산아래 문필이라는 고을.

당파싸움으로 치열한 벼슬길을 버리고 은둔생활하는 유학자 조진사, 그의 아들 구도..

고을에는 새로운 장 현감이 부임해온다.

전 이조참판집안의 자제이기에 과거급제가 아닌 음서로 벼슬길을 오른사람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조진사와 구도는 의병을 모아 출전한다...하지만 장현감은 가솔들을 데리고 도망간다.

이때 장현감의 딸 숙미는 아비를 따르지 않고 의병이 되어 남는다.

전쟁후 장현감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의병장이었던 조진사를 누명을 씌워 고문한다.

장현감의 아비는 신망있는 조진사를 존경하는 고을 백성들의 원망을 피하기 위해 조진사를 풀어주게 되는데...

cast



장현감 아버지
김상훈



조진사
유상흔



구도
이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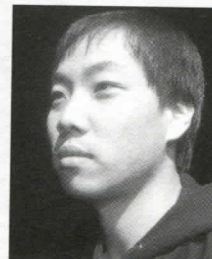
장현감
양성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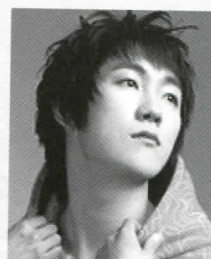
할미
문지연



숙미
송민정



한선비
권혁철



의병, 군청직원
권혁진



마을사람
김보경



마을사람
이남정



마을사람
김예린



마을사람
이진주

Staff



제작
강혜란



작곡, 음악감독
박철홍



안무
김순선



기획
고영애



조연출
조훈상



음향
김정원



의상, 소품
박지영



훈련
김예린

무대디자인
이소영

조명디자인
강대근